

2021년 10월 10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목상기도 하겠습니다.

◎ 목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1편 12~13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불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41편 12~13절]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286(통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베드로전서 3장 13~22절(신약p.380)

13.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4.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행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8.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21.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22.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 말씀선포 /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거룩한 삶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은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종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가 말뿐이 아니라 행함으

로 서로를 섬기며, 존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 할 수 없고 순종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는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렇듯 자신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분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성도는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삶으로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1. 의를 위해 고난까지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본문 13~16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와 법을 초월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며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처하셨듯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 선한 길을 걷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로 가지 않음으로 틀렸다고 말합니다. 틀렸다고 할 뿐 아니라 각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심지어 권력과 권세로 어려움을 줍니다. 고난과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공격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세상 권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궁극적으로 이 길만이 생명과 진리의 길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은 어쩌면 쉽고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물결을 따라 가는 것이 쉽고 더 빨리 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며,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지로 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른 삶을 살며,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성도는 고난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영원한 승리를 얻으며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고 고난도 견디고 이기며 사는 믿음의 백성되시길 축원합니다.

2.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본문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고 했습니다. 여기 “선한 양심을 가지라.”란 헬라어 “쉬네이데신 에 쾰콘테스 아가덴”입니다. “양심”이란 단어 “쉬네이데신”의 원형은 “선에 이데시스”로서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깨닫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잘 이해하고 알게 된 의식, 즉 도덕적 의식이나 양심을 뜻합니다. 또한 “선한”이란 헬라어는 “아가덴”으로 그 원형은 “아가도스”로 이는 “선한, 착함, 좋은”이란 뜻으로, 특별히 외적으로 들어나는 선한 행실로 이 또한 도덕적인 선한 행실이나 행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결국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뜻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바르게 이해함으로 삶 속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행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8~45절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빵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고난당하면서도 인내로써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과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부끄럽게 여길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회개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함으로 교회를 비방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성도가 감당할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거룩한 삶은 그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자기희생과 낮아짐을 통한 사랑의 실천은 어두움을 이기는 빛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고 명령했습니다. 반면에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성도는 입으로만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의를 위해 고난까지 받고, 세상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도는,

3.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삶의 근본적 차이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서 더불어 싸울 때,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 사도바울은 경고하며, 무엇보다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라고 표현했습니다.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는 성령이 소멸하고, 성령을 따를 때는 더욱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결국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면 그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 육체의 소욕을 말씀과 기도로 이기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일만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과 같이 의를 위한 고난을 이겨 내고 승리함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과 영생의 영광을 누리야 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25(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 폐 회 / 주기도문